



산티대학원대학교 김병재 교수(왼쪽)가 명상전문가 및 학생들과 함께 아와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원대학교는 (사)한국요가문화협회와 함께 요가전문 과정을 꾸리고 있다. 사진은 경강주협회 정(오른쪽)과 학생들의 수업 현장.

# 명상·요가 관련학과 설립 붐

요가나 명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규 대학·대학원 과정에서 관련 전공 커리큘럼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작년 한 해 건강지킴이 수단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심신수련문화를 전문화·체계화 하고자 하는 시도다.

현재 정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요가 전공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략 3군데.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의 요가학과,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요가치료학 전공, 춘해대학교 요가학과 등이 그것이다. 이들 학과 운영이 최근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요가 관련 전공과정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학교가 늘고 있다.

또한 명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명상대학원도 올 가을 강좌를 시작한다. 이들 움직임이 조망해 본다.

**■요가전공**  
호원대학교(063-450-7114)는 요가 전공 과정을 본격적으로 개설하면서 관

## 대중적 인기 끌며 전문화·체계화 필요성 제기 호원대, 4년제 대학 최초 요가학과 내년 신설 산티대학원대학교, 종교 초월 영성상담학과 눈길

심을 모으고 있다.호원대는 올해 초 산업체 위탁교육 과정에 요가전공 과정을 마련했다. 산업체위탁교육이란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편입학 기회를 제공해 4년제 대학교 졸업생과 동일한 자격의 정규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호원대측은 스포츠경호학부 내에 요가전공과정을 설립하고 (사)한국요가문화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요가전문인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원정재 박사, 정강주 한국요가문화협회장 등을 교수로 초빙한 것이 특징.

특히 2006년부터는 건강복지대학에 요가학과를 신설, 4년제 대학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요가전공 과정을 운영하기로 해 요가수행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동방대학원대학교(02-745-2140)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요가명상학 전공을 개설, 요가전문가 양성을 꾀하기로 했다. 특히 요가철학의 거장 정태혁 박사 등을 초빙해 요가철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불교종론학연구, 불교유식학연구, 청정도론연구 등의 전공선택 과정과 더불어 요가수트라, 요가우파니샤드, 하타요가경전, 요가생리학, 요가심리학 등의 과목 등이 마련돼 있다.

**■명상전공**  
경남 창원에서는 올 가을 산티대학원대학교(055-299-6379)가 첫 수업을 시작한다.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한국 라마나 마하리쉬 센터) 부설인 산티대학원대학교는 대안학교 형식의 순수 영성 대학원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종교를 초월한' 명상 대학원이다.

창원대학교 교수이자 한국 마하리쉬 센터 한국 지부장인 김병재 교수가 이끄는 대학원 과정에는 배단타학과, 요가학과, 초월·영성상담학과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배단타학과는 경우 인도의 고대 경전과 배단타인도의 6대 철학 중 가장 유력한 학파 성자들의 가르침을 주로 다룰 예정이며, 교수에 따라 불교 이론과의 접목도 기대되고 있다. 요가학과에서는 요가경전에 제시된 수행법을 습득하는 것을 중심으로, 초월영성상담학과는 칼라에너지·차크라·만다라·에니어그램 등을 상담에 적용하는 이론과 제반 기법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산티대학원대학교측은 "현재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 모든 시설요건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식학위를 정식인가 후 입학생에 한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동서심리상담연구소에서는 참나상담대학원 과정을 마련, 초월 영성상담전공 과정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교육부에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대학원이지만, 상담분야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상담대안대학원이라 눈길을 끈다.

간신재 기자 thaswhy@buddhapia.com

**■아빠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빠타 센터**

아빠타 마스터 김해균  
전환주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동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에니어그램 연구**  
명상상담연구원(원장 인경스님)은 7월 20~22일, 8월 3~5일 서울 목우선원에서 명상상담 에니어그램 연수를 실시한다.

성격에 대한 이해,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치유할 수 있는 명상상담기법 학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임승택 교수(경북대의) 고집멸도 강의, 박희석 교수(원광대의) 심리극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연 등도 예정돼 있다.

(02)2236-5306

**■한국요가연구 지도자대학**  
한국요가연합회(회장 신석규)는 단체에 소속된 요가원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강좌 "지도자대학"을 진행한다.

한 달에 한번 1박 2일 과정은 8월 27일 개강, 13개월 동안 이어진다.

인도철학, 요가철학, 요가생리학, 하타 요가를 포함한 요가이론 강의와 함께 요가 교수법, 요가원 경영 관리와 마케팅 등의 요가지도도 관련한 실질적인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형록 교수(춘해대

요가과, 무수바를(원광디지털대학 요가 강사) 등 요가전문가 10여명이 강사로 나선다. (02)3676-7071

**■쿤달리니 수련생 모집**  
한국요가연구원(원장 이태영)은 요가나 관련 학문을 2년 이상 수학한 이들을 대상으로 쿤달리니 요가 지도자를 수련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6개월이며, 수업은 9월 1일부터 토·일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각각 40명 정원 선착순 마감. (02)888-5087

##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26〉 절집의 또다른 보배 '동자승'

흔히들 '동진출가자'로 불리는 스님네들 가운데 중노릇 반듯하게 하는 이들을 보면 정말로 '승보(僧寶)'라는 말이 어울린다. 진짜 '인간문화재 승려부문'이라도 만들어 국가적으로도 보존할만한 무형문화재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든다. 절집의 풍습과 역사를 온몸으로 어른들에게 배우고 체현해내며 엄밀 간경 좌선 불사 등에서부터 시시콜콜한 것까지 어느 것 하나 기을 어짐 없이 엄밀하게 소화해낸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갈수록 이런 인재들은 보기드물어질 것이다. 한 집안에 아들 혹은 딸 하나씩밖에 낳지 않으니 어느 가문인들 선뜻 독자(獨子)를 절집에 내놓겠는가. 티베트에서는 짝수 있는 '놈'을 '틴포제'라고 하여 어릴 때부터 지도자로 특별히 키운다고 한다. 이런 인재들이 세계 불교화의 주축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선이룩에 나오는 꼬마 사미승 내지 동자승은 아직은 미완

는 동자를 불렀다. "가까이 오나라. 들건대 너도 불법을 안다는데 사실이나?"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어떤 것이 불법인가?" 이에 동자승은 자랑스럽게 스승이 평소 하던 대로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손가락을 세우자마자 선사는 칼로 그 손가락을 끊어 버렸다. 동자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갔다. 이에 선사가 애뜻한 목소리로 동자를 부르니 도망가다 말고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들었다.

"어떤 것이 불법인가?" 동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가락을 세웠다. 그러나 손가락이 보이지 않자 이에 크게 깨달았다. 이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무렵이나 돼야 동자승을 구경할 수 있는 시절이 되었다. 그것은 이벤트의 하나인지라 단기출가 형식으로 데리고 있던 가 행사를 마치고나면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



## 엄지손 세우고 구지 선사 흉내내던 동자승 스승에게 손가락 잘리고 그 자리서 깨쳐

성이지만 언제든 천진불(天真佛)로 진입할 수 있는 천재들이기도 하다. 구지 선사와 똑같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는 흉내를 내던 동자승도 마찬가지다.

구지 선사의 암자에 선사를 시봉하는 한 동자승이 있었다.

동자승은 항상 남자들이 구지 선사에게 와서 묻고 대답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보았다. 그런데 스승은 누가오든지 늘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법만 하는 것이었다.

서당에 삼년에 풍월을 읊는다고 이 동자승도 손가락을 세우는 선법(禪法)을 배우게 되었다. 드디어 스승이 출타하여 자리를 비울 때는 찾아온 남자를 자기 손가락 법문으로 제정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것을 지켜보던 어떤 남자가 구지 선사에게 말했다. "선사시여! 저 동자승은 참으로 희유(希有)합니다. 그도 불법을 알아서 누구나가 동자승에게 물으면 화상처럼 손가락만 세우며 걸터들었다. 각각 40명 정원 선착순 마감. (02)888-5087

야 한다. 해마다 이런 동자승 행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범불교집안의 '성골' 내지는 '진골' 출신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서로 묶어 주고 또 가슴으로 이들을 위한 정적 모임을 만들고 출가의 인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다.

이제 모두가 독자인 가정이 대세이다보니 누가 출가하여 이 불법문증을 지켜갈지 그것도 걱정이자. 앉아서 출가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다. 그래도 현재 출가자들중에는 장남과 독자가 생각보다 많은걸 보면 그것도 아이러니다. 수행생활이 주는 매력은 집안격정을 생략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반증일까?

그런데도 종단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들께서 '실버타운 훈장'이나 하실 말씀인 출가연령한계 40세 조항도 없애야 한다고 한다니 한편으론 종단백년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반복하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스럽다.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 개 천지조화 벽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대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조광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힘으로서 명상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축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고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